

전주매일

2023년 10월 20일 금
007면 지역

군산시, 초등생 대상

벼 수확 체험 '호응'

군산시가 가을철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쌀 한톨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8개 수확철을 맞아 초등학교 영농체험장에서 '벼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관내 8개 초등학교(구암, 금빛, 문화, 전주교대부설, 아리울, 월명, 지곡, 미장)에 '꼬마농부 스쿨팜' 영농체험장을 조성하고 계절별 원예농작물 재배 및 벼농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교내에 벼 체험장에서 모내기를 시작으로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및 관찰 등의 영농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벼 수확 체험에서는 낫으로 벼 베기, 흘테를 이용한 탈곡, 벧짚으로 새끼꼬기 등 전통 농기구를 활용해 벼 베기, 탈곡, 도정까지 벼가 쌀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농작업을 경험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제일신문

2023/10/20 금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초등학생 대상 벼 수확 체험

군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8개 수확철을 맞아 초등학교 영농체험장에서 '벼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벼 수확 체험에서는 낫으로 벼 베기, 흘테를 이용한 탈곡, 벧짚으로 새끼꼬기 등 전통 농기구를 활용해 벼 베기, 탈곡, 도정까지 벼가 쌀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농작업을 경험했다.

시는 학생들이 벼 재배 영농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 올바른 한국형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농업 가치 및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찬우 기자

군산, 초등생 대상 벼 수확 체험 '호응'

군산시가 가을철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생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8개 수확철을 맞아 초등학교 영농체험장에서 '벼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관내 8개 초등학교(구암, 금빛, 문화, 전주교대부설, 아리울, 월명, 지곡, 미장)에 '꼬마농부 스쿨팜' 영농체험장을 조성하고 계절별 원예농작물 재배 및 벼농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교내에 벼 체험장에서 모내기 시작으로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및 관찰 등의 영농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벼 수확 체험에서는 낫으로 벼 베기, 흘테를 이용한 탈곡, 벧짚으로 새끼꼬기 등 전통 농기구를 활용해 벼 베기, 탈곡, 도정까지 벼가 쌀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농작업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벼 재배 영농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 올바른 한국형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농과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가치 및 공익적 기능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전북중앙

"수확의 기쁨 맛봐요"

군산시, 초등생 영농체험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수확의 기쁨과 쌀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센터는 수확철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개 영농체험장에서 '벼 수확 체험'을 진행했



다. 이에 앞서 농기센터는 올해 8개(구암·금빛·문화·부설·

아리울·월명·지곡·미장초) 초등학교에 꼬마농부 스쿨팜 영농체험장을 조성하고, 계절별 원예농작물 재배 및 벼농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벼 수확 체험에서는 낫으로 벼 베기, 흘테를 이용한 탈곡, 벧짚으로 새끼꼬기 등 전통 농기구를 활용해 벼 베기, 탈곡, 도정까지 벼가 쌀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 경험했다.

/군산=김기현기자

지역포커스



“벼 수확하며 쌀 한톨 소중함 배웠어요”

군산지역 초등학생, 영농체험으로 쌀의 소중함 익혀

군산시가 가을 수확철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쌀 한톨의 소중함을 알려 호응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8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농체험장에서 벼 수확 체험행사를 가졌다.

특히 벼 재배 영농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를 배울 수 있어 올바른 한국형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관내 8개 초등학교인 구암, 금빛, 문화, 전주교대부설, 아리울, 월명, 지곡, 미장 등에 ‘꼬마농부 스쿨팜’ 영농체험장

을 꾸려 계절별 원예농작물 재배와 벼농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지난 5월께 각 학교의 벼 체험장에서 모내기를 시작으로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와 관찰 등의 영농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벼 수확 체험에서는 낫으로 벼 베기, 흙테를 이용한 탈곡, 벧짚으로 새끼꼬기 등 전통 농기구를 활용해 벼 베기, 탈곡, 도정까지 벼가 쌀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농과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용규 기자



군산시, 초등학생 대상 '벼 수확체험' 쌀 소중함 알려

군산시가 가을철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생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쌀 한톨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8개 수확철을 맞아 초등학교 영농체험장에서 '벼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관내 8개 초등학교(구암, 금빛, 문화, 전주교대부설, 아리울, 월명, 지곡, 미장)에 '꼬마농부 스쿨팜' 영농체험장을 조성하고 계절별 원예농작물 재배 및 벼농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교내에 벼 체험장에서 모내기를 시작으로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및 관찰 등의 영농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벼 수확 체험에서는 낫으로 벼 베기, 흘테를 이용한 탈곡, 벧짚으로 새끼꼬기 등 전통 농기구를 활용해 벼 베기, 탈곡, 도정까지 벼가 쌀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농작업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벼 재배 영농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 올바른 한국형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산=김낙현 기자



군산시, 초등학생 대상 벼 수확 체험행사

군산시가 추수기를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쌀 한톨의 소중함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개 초등학교(구암·금빛·문화·전주교대부설·아리울·월명·지곡·미장)에 조성된 영농체험장 ‘꼬마농부스쿨팜’에서 ‘벼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낫으로 벼 베기, 훌테를 이용한 탈곡, 벧짚으로 새끼꼬기 등 전통 농기구를 활용해 벼 베기, 탈곡, 도정까지 벼가 쌀로 변하는 과정의 농작업을 경험했다.

군산시 농촌지원과 김미정 과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주식인 쌀의 소중함과 농부의 수고로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농과 식생활 체험 행사를 통해 농업의 가치 및 공익적 기능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